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연구

Apartment House Unit Planning for Dual-earner Families Nursing Preschoolers

최윤정*
Choi, Yoon-Jung

김민정**
Kim, Min-Jung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behavioral patterns of family members at home and to grasp the housing needs of dual-earner families nursing preschoolers, and to suggest the planning of apartment house unit. The survey method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1 questions. The subjects were the wives who had full-time jobs and reared children 0-5 years old. The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at three-childcare centers in Daejeon and Cheongju. The data was collected from 5th-25th July, 2002. 115 cas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10.0 package.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suggest the apartment house planning for dual-earner families nursing preschoolers. It is necessary that the planners consider relationships of children's room with their parents room. A flexible and exchangeable plan to accommodate the need for growing children was desired. The children's room has to be located near their parents room when the children are babyhood. And then for privacy of family members, when their children go to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oom has to be moved to other space to b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room. small.

Keywords : Nursing Preschoolers, Dual-earner families, Apartment House, Unit Planning
주요어 :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 아파트, 단위평면계획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은 교육 기회의 증대, 취업 욕구의 증가, 여성들의 자기 개발 욕구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맞벌이가구 형태는 앞으로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¹⁾.

맞벌이가구가 당면한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노동 부담문제 및 직업 불안정성이 높게 지적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녀양육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정현숙, 1997, 재인용). 1995년 통계청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맞벌이가

구 중 학령기전인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27.7%, 남편 외벌이 경우가 41.9%로 맞벌이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어린 자녀의 유무가 주부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김수경, 1999). 따라서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맞벌이가구에 관한 연구는 맞벌이가구의 가구특성, 부모역할, 부부의 역할갈등, 취업주부의 가

1) 1994년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43%이고 기혼여성이 취업여성의 5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기혼여성 중 학령기 전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60% 이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7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정현숙, 1997).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1990년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7.0%에서 1998년에는 47.4%, 2001년에는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2).

*충북대 주거환경·소비자학과 조교수, 이학박사
**서진건축 디자이너

사노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맞벌이 부부가 직면하게 되는 자녀양육, 맞벌이 부부간의 역할갈등 그리고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따르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맞벌이가구의 주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므로, 맞벌이가구의 생활과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계획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실적 이유에서 맞벌이가구는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희망하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63.0%로 조사되었다(한겨레, 2001). 이처럼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에는 생활의 편리성(69.4%), 주거환경의 쾌적성(24.0%), 교육환경(5.3%) 등이 있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주거계획에서도 다른 주거유형보다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의 생활행위와 주거요구 등을 파악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아파트 단위 평면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의 주거계획과 관련된 생활행위를 파악한다.

둘째,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의 평면계획에 관련된 주거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 평면의 계획방향과 계획안을 도출한다.

2. 선행연구고찰

1) 맞벌이가구의 주거에 관한 연구

맞벌이가구의 주거에 관한 연구로서 김수경(1999)은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생활을 파악하고, 가족특성에 따른 주거요구의 차이를 분석하여 주거대안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맞벌이 가족으로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초등학교 시기 이하이며 전일근무직업을 가진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맞벌이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면의 변화가 가능한 공간 가변형 구조와 적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김수경·정유선·윤정숙(2002)은 한·일 양국의 기혼취업여성에 대한 가사일과 자녀양육실태 및

요구와 주거요구를 파악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주부는 자녀교육과 관련된 주거지 조건을 중시하며 일본의 주부는 주거지역의 편의시설을 중시하였으며, 한국의 취업주부는 일본의 취업주부에 비해 주거지역환경에 큰 비중을 두고 주거를 선택하였다. 한국 주부는 가사공간에서 세탁행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일본주부들은 부엌과 세탁공간을 분리하길 원하였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주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맞벌이가구를 위한 주거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2) 주거요구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에서 주거요구의 내용 및 영향요인을 정리해 보면 거주자의 가구특성과 주택특성을 주거요구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김수경, 1999; 이연숙·신화경·홍미혜, 1997; 이영심·신경주, 1998; 최연진, 2000). 특히 가구특성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는 연구가 많았는데 이영심·신경주(1998)의 연구에 따르면 주부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아파트 욕실에 대한 요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욕실에 대한 요구정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요구의 내용은 주거단위 측면에서부터 설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거주자 요구에 의한 농촌주택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최병숙, 1995)에서는 주거요구의 내용을 주택의 규모, 배치, 외관, 평면구성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상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면계획에 관계된 주거요구에 대해 단위주거특성, 공간특성, 설비특성을 포함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청주시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의 주부로서 전일 근무자이며, 만자녀가 취학 전인 경우로 하였다. 맞벌이가구 중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주말부와 같은 가구형태는 부부가 일상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와는 주거요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설문내용

항 목	구 분	내 용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특성	교육정도, 연령, 주부와 남편의 직업
	가구특성	연평균 소득, 가구 구성, 자녀의 연령과 성별
현재 생활행위	거실, 자녀방, 안방, 부엌 및 식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생활행위	
주거요구*	단위주거	주거유형, 주택의 규모, 방의 수
	공간특성	공간별 필요 정도, 안방과 자녀방의 분리 희망, 안방과 자녀방의 연결형태, 자녀방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 거실과의 연결 공간, L·D·K 연결형태, 욕실과의 연결공간
	설비특성	부엌 및 식사실(작업대 유형, 필요설비), 욕실(욕실의 개수, 설비의 개수), 발코니 활용방법, 세탁공간의 유형

*'이러한 집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바를 질문함

조사도구는 <표 1>과 같이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의 생활행위, 주거요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02년 7월 5일~7월 25일에 청주시와 대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3곳의 협조를 받아 취업주부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설문지의 배부를 의뢰한 뒤 다시 방문·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총 200부를 배부하여 124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하게 기재된 것과 본 연구의 대상범위에서 벗어나는 9부를 제외하고 11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w 10.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단순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67.0%, 20대가 29.5%, 40대 이상이 3.5%였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전문대, 대학원 포함)이 80.4%, 고졸 이하가 19.6%였다. 주부의 직업은 자영업 39.8%, 전문직 34.5%, 사무직 25.2% 순으로 많았고, 남편의 직업은 자영업 37.4%, 전문직 28.7%, 사무직 27.8%, 행정관리직 6.1% 순으로 분포하였다.

가구특성은 <표 2>와 같이, 연평균 소득은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37.8%, 2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24.3% 순이었다. 가구구성을 보면, 부부+자녀가구가 75.7%로 가장 많았으며 3세대가구는 21.7%로 나타났다. 첫자녀 연령은 평균 4.53세이고 2-4세

표 2. 가구특성

구 분		N(%)
가구구성	부부+자녀	87 (75.7)
	부부+자녀+부모세대	25 (21.7)
	부부+자녀+친척	2 (1.8)
	부부+자녀+비혈연	1 (0.9)
	계	115 (100.0)
첫 자녀 연령	0-1세	9 (7.8)
	2-4세	50 (43.5)
	5-7세	56 (48.7)
	계	115 (100.0)
자녀수	1명	54 (47.0)
	2명	60 (52.2)
	3명	1 (0.8)
	계	115 (100.0)
자녀의 성별	동성 구성	37 (60.7)
	이성 구성	24 (39.3)
	계	61 (100.0)

무응답 제외

가 43.5%, 5-7세가 48.7%였다. 자녀수는 2명이 52.2%, 1명이 47.0%였으며, 자녀의 성별은 동성구성이 60.7%, 이성구성이 39.3%였다.

2. 현재의 생활행위

1) 거 실

거실에서의 생활행위는 <표 3>과 같이 TV시청 89.6%, 가족단란/휴식 84.3%, 손님접대 77.4%, 빨래정리 및 다림질 73%, 자녀 공부 돌봐 주기/대화 72.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실 계획에는 TV 시청과 가족단란, 손님접대, 자녀 공부, 대화, 빨래정

리 및 다림질이 가능한 공간 구성과 가구 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50% 정도가 식사행위에 응답하였는데, 이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좌식의 식사행위가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를 위해서는 식탁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좌식 식사공간의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자녀방

자녀방에서는 주로 자녀의 장난감 보관 76.5%, 자녀의 공부/자녀의 놀이 68.7%, 자녀의 옷과 이불 보관이 61.7%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자녀의 취침은 33.9%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기 가구에 있어서는 자녀방에서 자녀의 독립된 생활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적고 주로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자녀방에는 수납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안 방

안방에서는 주로 자녀와 함께 취침이 66.1%, TV 시청 33.9%, 가족단란 2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방과 자녀방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부엌 및 식사실

부엌 및 식사실에서는 식사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독서/신문구독/가계부 작성 27.0%, 손님접대 26.1% 순으로 나타났다.

3. 주거요구

1) 단위주거요구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는 <표 4>와 같다. 맞벌이가구가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이 34.8%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택 규모는 30평대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평대 20.0%, 20평대 17.4%로 나타났으며 평균 37.4평이다. 필요로 하는 방의 수는 54.8%가 3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4.8%가 4개를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공간요구

(1) 필요공간

각 공간에 대한 필요정도는 <표 5>와 같이, 모든 공간에 대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로 하

표 3. 각 실에서의 생활행위

공 간	행 위	N(%)
거실	자녀 공부 돌봐 주기/대화	83 (72.2)
	독서/신문구독	76 (66.1)
	TV시청	103 (89.6)
	간단한 실내운동	49 (42.6)
	빨래정리 및 다림질	84 (73.0)
	식 사	57 (49.6)
	자녀와 친구들의 그룹활동	36 (31.3)
	자녀의 주된 놀이공간	81 (70.4)
	가족단란/휴식	97 (84.3)
	손님접대	89 (77.4)
자녀방	취 침	5 (4.3)
	자녀의 공부/자녀의 놀이	79 (68.7)
	컴퓨터	47 (40.9)
	자녀와 친구들의 그룹활동	31 (27.0)
	가족단란	11 (9.6)
	자녀의 장난감 보관	88 (76.5)
	자녀의 옷과 이불 보관	71 (61.7)
안방	자녀의 취침	39 (33.9)
	자녀 외의 가족원의 취침	6 (5.2)
	가족단란	31 (27.0)
	TV시청	39 (33.9)
	간단한 실내운동	5 (4.3)
	빨래정리 및 다림질	16 (13.9)
	자녀와 친구들의 그룹활동	7 (6.1)
부엌 및 식사실	자녀와 함께 취침	76 (66.1)
	부부침실	5 (4.3)
	자녀와 책읽기, 놀이	5 (4.3)
	자녀공부 보아주기/대화	24 (20.9)
	자녀와 놀이	17 (14.8)
	독서/신문구독/가계부 작성	31 (27.0)
	빨래정리 및 다림질	8 (7.0)
복수응답	식 사	100 (87.0)
	손님접대	30 (26.1)
	가족단란 및 휴식	19 (16.5)

는 공간은 창고가 4.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재, 놀이공간이 4.29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옷방이 4.21로 많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평면 계획시 창고, 서재, 놀이 공간, 옷방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방의 수는 3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자녀는 동성의 구성이

표 5. 각 공간별 필요정도

(): %

공 간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2)	그렇다 (3)	대체로 필요하다 (4)	정말 필요하다 (5)	계	평균
서재	0 (0.0)	2 (1.7)	13 (11.3)	50 (43.5)	50 (43.5)	115 (100.0)	4.29
컴퓨터공간	1 (0.9)	7 (6.1)	20 (17.4)	55 (47.8)	32 (27.8)	115 (100.0)	3.96
취미공간	0 (0.0)	7 (6.1)	30 (26.1)	42 (36.5)	36 (31.3)	115 (100.0)	3.93
운동공간	3 (2.6)	13 (11.3)	37 (32.2)	40 (34.8)	22 (19.1)	115 (100.0)	3.57
놀이공간	3 (2.6)	1 (0.9)	10 (8.7)	47 (40.9)	54 (47.0)	115 (100.0)	4.29
손님접대 공간	6 (5.3)	24 (21.1)	44 (38.6)	25 (21.9)	15 (13.2)	114 (100.0)	3.17
옷방	0 (0.0)	8 (7.0)	15 (13.0)	37 (32.2)	55 (47.8)	115 (100.0)	4.21
창고	1 (0.9)	5 (4.4)	13 (11.4)	33 (28.9)	62 (54.4)	114 (100.0)	4.32

무응답 제외

표 4.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

구 분	N (%)	
주거유형	단독주택	40 (34.8)
	아파트	70 (60.9)
	다세대 주택	1 (0.9)
	주상복합건물	4 (3.5)
	계	115 (100.0)
주택규모	20평 - 24평	9 (7.8)
	25평 - 29평	11 (9.6)
	30평 - 34평	36 (31.3)
	35평 - 39평	20 (17.4)
	40평 - 44평	13 (11.3)
	45평 - 49평	10 (8.7)
	50평 - 54평	6 (5.2)
	55평 - 59평	3 (2.6)
	60평 - 64평	3 (2.6)
	65평 이상	4 (3.5)
계	115 (100.0)	
평 균	37.35	
방의 수	2개	2 (1.7)
	3개	63 (54.8)
	4개	40 (34.8)
	5개	9 (7.8)
	계	115 (100.0)
	평 균	3.51

표 6. 안방과 자녀방에 대한 요구

구 분	N (%)	
안방과 자녀방의 분리희망 여부	그렇다	109 (94.8)
	아니다	6 (5.2)
	계	115 (100.0)
연결형태	각 실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	101 (87.8)
	가변형 벽체를 이용하여 안방과 자녀방을 연결	14 (12.2)
	계	115 (100.0)
자녀방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안전성	78 (67.8)
	보호자와의 동선	19 (16.5)
	실내 장식	2 (1.7)
	수납 공간	16 (13.9)
	계	115 (100.0)

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전성이 6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크고, 앞에서 안방에서의 생활행위로 자녀와 함께 취침하는 비율이 66.1%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방과 자녀방의 분리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가변형 벽체에 의한 분리'에 대한 요구도 12.2%로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하나, 응답자의 '가변형 벽체'에 대한 인식부족, 가변형 벽체의 차음성 부족에 대한 우려, 현재보다는 자녀가 성장한 후를 고려하는 것 등이 이유로 추측된다.

따라서 자녀방을 독립적으로 계획하면서 자녀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방을 자녀방과 연결하여 계획하면서, 견고하고도 개조 가능한 벽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이 나타났으므로, 방 3개는 부부방, 자녀방, 서재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안방, 자녀방에 대한 요구

<표 6>과 같이 안방과 자녀방은 94.8%가 분리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자녀방에서 가

(3) 공간연결

맞벌이가구는 가족 공동의 시간이 전업주부에 비해 부족하므로 가족간의 시각적, 물리적 연결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연결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① 거실과의 연결공간

거실과 연결되길 원하는 공간으로는 <표 7>과 같이 부엌 및 식사실 50.4%, 식사실 47.8%, 베란다 47.8%, 자녀방 46.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가구도 거실과 연결되기를 요구하는 공간이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의 공간구성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거실과 연결되길 원하는 공간으로 가장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엌 및 식사실의 경우도 그 비율이 50.4%이므로, 반대로 50% 정도의 응답자는 연결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취업주부의 부엌 공간의 정리에 대한 가사부담이 반영된 응답인 것으로 추측된다.

② L.D.K 연결형태

부엌, 식사실, 거실의 연결형태는 '부엌 내에 식사실을 두고 거실과는 분리한다'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거실과 연결되길 희망하는 공간에 대한 응답 결과 거실의 독립성을 희망하는 것과 연관된다.

③ 욕실과의 연결공간

욕실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공간은 탈의/생의 및 화장코너가 6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안방이 57.4%로 높았다. 이는 안방과 옷방 및 화장공간에 연결된 욕실을 원하는 것으로서, 출근 준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설비요구

(1) 부엌 및 식사실

부엌 및 식사실의 설비 중 작업대 유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사작업시 가족들과 대화하며 어린 자녀의 관찰이 가능한 거실대면형(53.5%)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작업대와 수납공간이 벽면을 향해 있는 형태인 벽면부착형(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엌 및 식사실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로는, 천장까지의 높이로 된 키 큰 수납장(73.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벼운 식사용 카운터(60%)와 오븐(60.0%)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앞에서 L-DK 형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거실

표 7. 공간연결 요구

구 분		N(%)
거실과의 연결공간*	안방	45 (39.1)
	자녀방	53 (46.1)
	식사실	55 (47.8)
	부엌	58 (50.4)
	베란다	55 (47.8)
	현관	33 (28.7)
	세탁실	5 (4.3)
	다용도실	6 (5.2)
LDK 연결형태	부엌, 식사실, 거실을 독립적으로 둔다	19 (16.5)
	거실과 식사실을 개방하고 부엌을 분리시킨다	17 (14.8)
	부엌 내에 식사실을 두고 거실과는 분리한다	69 (60.0)
	부엌, 식사실, 거실을 모두 개방시킨다	10 (8.7)
	계	115 (100.0)
욕실과의 연결공간*	거실	34 (29.6)
	현관	9 (7.8)
	안방	66 (57.4)
	자녀방	31 (27.0)
	세탁실	40 (34.8)
	다용도실	19 (16.5)
	부엌 및 식사실	3 (2.6)
	다른 욕실	7 (6.1)
	탈의/생의 및 화장코너	71 (61.7)
	베란다	5 (4.3)

*복수응답

표 8. 부엌 및 식사실 설비요구

구 분		N(%)
작업대 유형	벽면부착형	37 (32.5)
	거실대면형	61 (53.5)
	아일랜드형	16 (14.0)
	계	114 (100.0)
필요 설비	가벼운 식사용 카운터	69 (60.0)
	오븐	69 (60.0)
	식기세척기	65 (56.5)
	식기건조기	54 (47.0)
	키 큰 수납장	84 (73.0)

복수응답

대면형 작업대, 키 큰 수납장 등에 대해 요구가 높았으므로,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부엌 및 식사는 벽면을 모두 수납장으로 하고 거실대면형 작업대와 카운터를 이용하여 거실과 분리하고, 식사공간과는 연결되는 형태로 계획하는 방법이 있다.

(2) 욕실

욕실의 개수에 대해서는 <표 9>와 같이 ‘남편, 부인, 자녀의 사용시간대가 겹치므로 2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64.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칸막이 등으로 잘 구분하여 1개가 필요하다’(20.9%), 순으로 나타났다.

욕실에 필요로 하는 설비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변기(1.75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면기(1.62개), 샤워 부스(1.40개), 욕조(1.17개)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안방, 화장공간과 연결된 욕실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고, 욕실이 2개 필요하다는 비율이 64.3%나 된다. 필요 설비로 욕조는 평균 1에 가깝고 변기, 세면기는 평균 2에 가까우므로, 이를 위해서는 욕실은 2개 계획하면서 안방 욕실은 변기, 세면기, 샤워 부스를 설치하고 옷방 및 화장공간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공용 욕실은 변기, 세면기와 함께, 자녀가 어려서인지 욕조가 1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므로 샤워부스보다는 욕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발코니 및 세탁공간

발코니의 활용방법은 <표 10>과 같이, ‘실내 정원으로 꾸민다’(53.9%)가 가장 많았으며, ‘세탁·건조 공간으로 활용한다’(49.6%), ‘수납장소로 활용한다’(39.1%), ‘거실과 연결하여 활용한다’(37.4%),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33.9%)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공간의 유형에 대해서는 ‘부엌과 가까운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두어 부엌의 큰 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56.5%)에 대한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면발코니는 정원을 도입하여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엌과 연결된 다용도실을 다소 넓게 하여 세탁기를 두고 하나의 공간에서 세탁과 건조가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표 9. 욕실설비 요구

구 분		N(%)
욕실의 개수	칸막이 등으로 잘 구분하여 1개	24 (20.9)
	욕실과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설계	17 (14.8)
	남편, 부인, 자녀의 사용시간대가 겹치므로 2개 필요	74 (64.3)
	계	115 (100.0)
구 분		평균
설비의 개수	욕 조	1.17개
	샤워 부스	1.40개
	세면기	1.62개
	변 기	1.75개

표 10. 발코니 및 세탁공간 요구

구 분		N (%)
발코니 활용 방법*	정원으로 꾸민다	62 (53.9)
	수납장소로 활용한다	45 (39.1)
	거실과 연결하여 활용한다	43 (37.4)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39 (33.9)
	세탁, 건조 공간으로 활용한다	57 (49.6)
세탁 공간의 유형	부엌에 세탁기, 건조기, 다림질대를 함께 설비한다	9 (7.8)
	부엌과 가까운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두어 부엌의 큰 일을 같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65 (56.5)
	욕실에 세탁기를 둔다	3 (2.6)
	욕실과 인접한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둔다	25 (21.7)
	앞 베란다를 건조 공간으로 사용한다	13 (11.3)
계		115 (100.0)

*복수응답

4.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

1) 계획방향 도출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행위와 주거요구를 파악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라 계획방향을 도출하면 <표 11>과 같다. 조사결과는 각 조사항목 중 응답빈도가 높은 순으로 계획방향에 영향을 미친 내용 위주로 요약하였다.

2) 평면 설계안

도출된 계획방향에 따라 <표 12>와 같이 설계개념과 요소를 설정하고 설계안을 <그림 1, 2>와 같이 제안한다.

표 11. 조사결과 요약 및 계획방향 도출

조사항목		조사결과 요약	계획방향
가족 구성	가구구성	부부 + 자녀(75.7%)	· 핵가족, 동성의 2인 자녀 기준
	자녀구성	2명(52.2%), 동성 구성(60.7%)	
생활 행위	거실	TV시청(89.6%), 가족단란(84.3%), 식사(49.6%)	· 좌식의 식사공간계획 · 자녀방의 수납공간 확보 · 안방과 자녀방의 연계성 고려
	자녀방	자녀의 공부(68.7%), 자녀의 장난감 보관(76.5%), 자녀의 옷과 이불 보관(61.7%)	
	안방	자녀와 함께 취침(66.1%)	
	부엌 및 식사실	식사(87.0%)	
단위 주거 요구	주거유형	아파트(60.9%)	· 아파트 · 30평대 · 방 3개 · 전체적으로 입식
	주택규모	31평-35평 (32.2%)	
	방의 수	3개 (54.8%)	
	기거양식	각 공간별로 77.0~90.3% 입식에 응답	
공간 요구	공간별필요정도*	창고(4.32), 서재(4.29), 놀이공간(4.29), 옷방(4.21)	· 평면 계획시 창고, 서재, 놀이 공간 등이 포함될 필요 있음.
	안방과 자녀방의분리 희망	희망한다(94.8%)	· 현재는 자녀와 함께 취침 또는 안방과 자녀방을 연결하고, 자녀성장 후 안방과 자녀방을 완벽하게 분리 또는 서재와 자녀방을 교환하는 방법 고려
	안방과 자녀방의 연결형태	각 실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87.8%)	
	자녀방에서 가장 고려되어야할 사항	안전성(67.8%)	· 거실은 자녀방, 식사실, 부엌, 베란다와 연결시켜 계획 · 부엌 및 식사실은 부엌 내에 식사실을 두고 거실과 분리 · 안방과 옷방 및 화장공간에 연결된 욕실 계획
	거실과의 연결	자녀방 (46.1%), 식사실(47.8%), 부엌(50.4%), 베란다(47.8%)	
	L·D·K 연결형태	부엌 내에 식사실을 두고 거실과는 분리한다(60.0%)	
	욕실과의 연결	안방(57.4%), 탈의/깎의 및 화장코너(61.7%)	
설비 요구	부엌 작업대 유형	거실 대면형(53.5%)	· 벽면을 모두 수납장으로 계획 · 거실대면형 작업대와 카운터로 거실과 분리, 식사 공간은 연결하는 형태
	부엌 및 식사실에서의 필요설비	가벼운 식사용 카운터(60.0%), 키 큰 수납장(73.0%)	
	욕실의 개수	남편, 부인, 자녀의 사용시간대가 겹치므로 2개 필요(64.3%)	· 욕실은 2개 계획 · 가족공용 욕실은 변기, 세면기, 욕조를 설치, 안방 욕실은 변기, 세면기, 샤워부스를 설치
	욕실 설비의 개수*	욕조(1.17개), 샤워 부스(1.40개), 세면기(1.62개), 변기(1.75개)	
	발코니 활용방법	정원으로 꾸민다(53.9%)	· 전면 발코니는 정원을 도입
	세탁공간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두어 부엌의 큰 일을 같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56.5%)	· 부엌과 연결된 다용도실에 세탁과 건조가 가능하도록

(): 응답비율, *항목 (): 평균

표 12. 평면 설계안의 특징

	A안	B안
개념	가변	교환 + ZONING
주요 특징	· 현재: 안방과 자녀방을 옷방 및 화장공간을 통해 연결 · 자녀 성장 후: 안방, 자녀방을 완벽하게 분리시키고 좌식 식사공간은 안방 내의 서재(nook)로 변형	· 현재: 안방과 자녀방을 연결하고 서재를 독립 · 자녀 성장 후: 서재와 자녀방을 교환하여 서재와 안방을 부부 ZONE으로 사용
주요 설계요소	· 외부창고: 현관 외부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에서 직접 연결되는 외부창고 계획 (유모차, 자전거 등의 편리한 수납) · 공간구성: L·DK형(대면형으로 거실과 분리)공동공간, 부부방, 자녀방, 서재, 욕실 2개, 옷방 및 화장공간 · 공간별 요소: 좌식 식사공간, 자녀방의 수납공간, 부엌 및 식사실의 키 큰 수납장과 식사용 카운터, 전면발코니의 정원, 다용도실의 세탁과 건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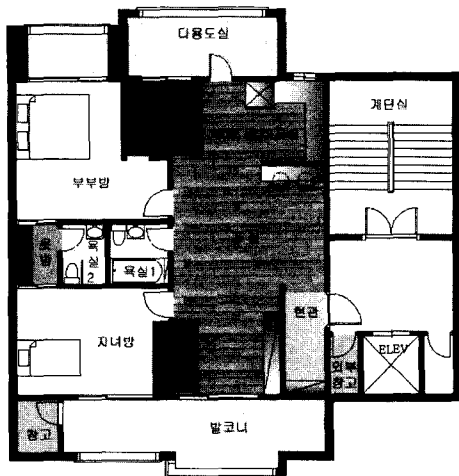


그림 1. 평면설계안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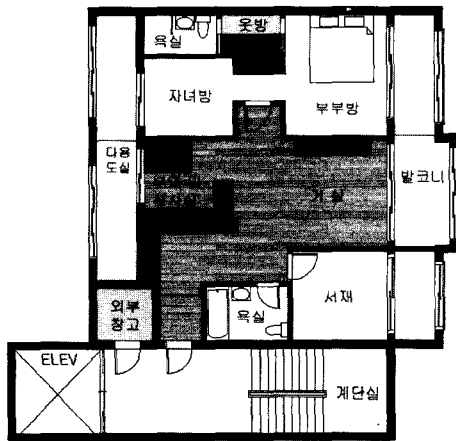


그림 2. 평면설계안 B

IV. 결 론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의 생활행위를 파악하고 주거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실에서의 주요 생활행위는, 거실은 TV시청(89.6%), 가족단란(84.3%), 식사(49.6%)로 나타났다. 자녀방은 자녀의 공부(68.7%), 자녀의 장난감 보관(76.5%), 자녀의 옷과 이불 보관(61.7%)으로 나타났다. 안방에서는 자녀와 함께 취침(66.1%)으로 나타났다. 부엌 및 식사실은 식사(87.0%)로 나타났다.

2) 단위주거에 대한 주거요구에 대해서 주거유형으로는 아파트(60.9%), 주택규모는 31평-35평(32.2%),

방의 수는 3개(54.8%)를 가장 선호하였다.

3) 공간에 대한 주거요구 중 필요공간으로는 창고(4.32), 서재(4.29), 놀이공간(4.29), 옷방(4.21)이 높게 나타났다.

4) 안방과 자녀방에 대한 요구는 안방과 자녀방의 분리 여부에 대하여 '희망한다'(94.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방과 자녀방의 연결형태에서는 '각 실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87.8%)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방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전성(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공간연결에 대한 요구는, 거실과의 연결공간으로는 자녀방(46.1%), 식사실(47.8%), 부엌(50.4%), 베란다(47.8%)로 나타났다. 또 L·D·K 연결형태로는 부엌내에 식사실을 두고 거실과는 분리한다(60.0%), 욕실과의 연결공간으로는 안방(57.4%), 탈의/깡의 및 화장코너(61.7%)가 높게 나타났다.

6) 설비에 대한 요구 중 부엌작업대 유형으로는 거실 대면형(53.5%), 부엌 및 식사실에서의 필요설비로는 가벼운 식사용 카운터(60.0%)와 키 큰 수납장(73.0%)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의 개수는 남편, 부인, 자녀의 사용 시간대가 겹치므로 2개 필요(64.3%), 욕실 설비의 개수는 욕조(1.17), 샤워 부스(1.40), 세면기(1.62), 변기(1.75)로 나타났다. 또 발코니 활용방법으로는 정원으로 꾸민다(53.9%), 수납장소로 활용한다(39.1%)로 나타났다. 세탁공간에 있어서는 부엌과 가까운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두어 부엌의 큰 일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만든다(56.5%)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도출한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계획방향은, 단위주거에 대한 요구에 따라 주거유형으로는 아파트로 규모는 30평대로 계획하고 방은 3개로 설계한다. 생활행위 특성에 따라 좌식 식사공간을 계획하고 자녀방의 수납공간을 확보하며, 공간에 대한 요구에 따라 평면 계획시 창고, 서재, 놀이공간 등을 포함시키고 현재는 자녀와 함께 취침하고, 자녀성장 후 안방과 자녀방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또 거실은 자녀방, 식사실, 부엌, 베란다와 연결시켜 계획하고 부엌 및 식사실은 부엌 내에 식사실을 두고 거실과 분리시키며 안방과 옷방 및 화장공간에 연결된

욕실을 계획한다. 설비요구에 따라 부엌 및 식사실은 벽면을 모두 수납장으로 하고 거실대면형 작업대와 카운터를 두고 식사 공간을 연결하는 형태로 계획한다. 욕실은 2개로 계획하고 가족 공용 욕실은 변기, 세면대, 욕조를 설치하며 안방 욕실은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를 설치한다. 전면발코니에는 정원을 도입하고 세탁공간은 부엌과 연결된 다용도실로 계획한다.

이상의 결과에 따른 자녀양육기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파트 단위평면 설계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변적 구성으로서 자녀양육기에는 안방과 자녀방을 옷방 및 화장공간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안방과 자녀방의 연계성을 충족시키고, 자녀의 성장 후에는 안방과 자녀방을 완전히 분리하고 안방과 근접해 있던 좌식 식사공간을 서재로 변형하는 설계안이다.

둘째, 교환과 ZONING 개념을 도입한 설계안으로서 자녀양육기에는 안방과 자녀방을 연결시키고 서재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지니지만 자녀의 성장 후에는 서재와 자녀방을 교환함으로써 서재와 안방을 부부 ZONE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설계요소는

L·DK형(대면형으로 거실과 분리) 공동공간, 좌식 식사공간, 부부방, 자녀방, 서재, 욕실 2개, 파우더룸의 공간구성으로 하고, 현관 외부에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에서 직접 연결되는 외부 창고를 계획함으로써 유모차와 자전거 등을 편리하게 수납하여 공간요구에서의 창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설계안이다.

참 고 문 헌

1. 김수경(1999), 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주거요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수경·정유선·윤정숙(2002), 한일취업주부의 가사생활 실태 및 주거요구 비교, 한국주거학회지, 13(1), pp. 1-9.
3. 이연숙·신화경·홍미혜(1997), 거주자특성별 주민공유공간 요구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1), pp. 1-12.
4. 이영심·신경주(1998), 아파트 거주자의 욕실에 대한 의식·만족·요구 - 30평형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지, 9(1), pp. 43-51.
5.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pp. 151-162.
6. 최병숙(1995), 거주자 요구에 의한 농촌주택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최연진(2000), 거주자의 식생활 유형에 따른 공간계획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통계청.
9. <http://www.hani.co.kr> 한겨레 경제·부동산(2001-06-12).